



손으로 보는 세상



시선집중

[성명서]제1차 점자발전기본계획 수립을 환영한다!

테마기획

신년사

인 터 뷰

풍선으로 만드는 꿈의 세상, 풍선 아티스트 고흥석 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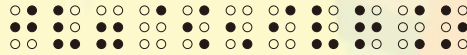
포커스

중도시각장애인은 어떻게 재활할까요?

목차	02	
점자로 말해요	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황금 돼지
시선집중	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명서]제1차 점자발전기본계획 수립을 환영한다!
테마기획	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년사
인터뷰	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풍선으로 만드는 꿈의 세상, 풍선 아티스트 고흥석 작가
포커스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도시각장애인은 어떻게 재활할까요?
함께 사는 이야기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천사는 천사다웠으면 조재훈(서울특별시 종로구)
월드 리포트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캐나다, 2019년 3월까지 '장애인 도서관 확대'하기로● 화웨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표정 인식 앱 선보여
뉴스앨범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겨울에도 필라테스로 관리해요!● 스릴만점 스키를 타며 추위를 잊어요!● 2018년 공직진출대비반 평가회가 열렸습니다!●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시각장애인을 만나면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장소를 방문한 시각장애인을 만나면

2019년은 6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황금 돼지의 해라고 하죠.

황금 돼지는 점자로 어떻게 나타낼까요?



황금 돼지

① ④
② ⑤
③ ⑥

점자일람표															
자 음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된소리
받 침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쓰받침
모 음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ㅙ	ㅚ	ㅜ	ㅠ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ㅑ	ㅓ	ㅕ	
약 자	가	나	다	마	바	사	자	카	타	파	하	억	언	얼	연
	열	영	육	온	웅	운	울	은	을	인	것				
약 어	그래서		그러나		그러면		그러므로		그런데		그리고		그리하여		
숫 자	수표	1	2	3	4	5	6	7	8	9	0				
문 장 부 호	!	?	.	,	-	~(—)	*	“ ”	‘ ’	/					
	:	가운뎃점 (.)	말줄임표(...)		말줄임표(...)		소괄호()		대괄호[]						
영 어	영어시작	끝	대문자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아포스트로피 ,

* '나, 다, 마, 바, 자, 카, 타, 파, 하' 약자뒤에 모음이 이어질 때는 약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 'ㅅ, ㅈ, ㅊ, ㅊ, ㅊ, 다음에 약자 영'이 올때는 '영'으로 바뀐다.

[성명서]

제1차 점자발전기본계획 수립을 환영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2월 17일 "제1차 점자발전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계획은 '점자법' 제7조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점자 관련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점자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점자는 시각장애인이 활용하는 촉각문자로, 1926년 송암 박두성 선생이 '훈맹정음'을 창안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점자법'은 2016년 5월 29일 제정되었으며, 이 법 제4조에서는 '점자는 한글과 더불어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문자이며,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은 조성되어 있지 않으며, 오히려 점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조장하는 사례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

제1차 점자발전기본계획은 점자사용환경을 조성하고 점자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계획들이 담겨져 있어 제1차 계획이 순조롭게 마무리되어 2023년에는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기를 바란다.

많은 기대 속에 발표된 '제1차 점자발전기본계획'을 보면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 우선 '점자 정책 전문가 위원회'의 소속이 불분명하다. 점자법의 발의단계에서는 '점자 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하고 있었으나, 입법 논의 과정에서 삭제되어 점자와 관련된 컨트롤타워가 없어졌다. 점자의 체계적 발전과 보전을 위해서는 '점자 정책 전문가 위원회'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어 그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여야 한다.

두 번째로, 지난 2013년 6월 29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세계지식재산권협회가 체결한 '독서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유예 조약'의 실효적 시행을 위한 내용은 반영되지 못하였다. 이 조약은 독서장애인을 위해 일반 저작물을 점자 등으로 제작하는 경우 저작권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며, 이 저작권 유예는 해당 국가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저작권법" 제33조에서 시각

장애인의 복리증진을 위해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전용기록방식으로 복제, 배포,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출판사들이 저작권 침해라는 이유로 비협조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어 유명무실한 조항에 머물고 있다. 점자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점자 등으로 복제, 배포하는 경우에 출판사들의 원본파일 납본을 의무화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한데, 이번 계획에서는 담기지 못하였다.

세 번째로, 사법 및 행정기관에서의 점자 사용 보장에 대한 계획이 담겨져 있지 않다. 점자사용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의 점자사용을 보장하여야 한다. '점자법' 제4조제2항에서는 '공공기관등은 입법·사법·행정·교육·사회문화적으로 점자의 사용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고 있으나 이번 계획에서는 이의 시행방안이 빠져 있다.

마지막으로 예산의 미반영이다.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산 소요는 필연적이다. 그러나 예산당국자들의 무관심으로 점자발전기본계획과 관련된 2019년도 예산은 반영되어 있지 않아 기본계획 시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첫걸음마를 댄 '제1차 점자발전기본계획'의 수립을 환영하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기본계획 수립에 참여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들과 여러 전문가들께도 감사를 표한다.

2018년 12월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신년사

전국의 시각장애인 회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지부장님과 지회장님, 대의원 여러분,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님, 제14기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하 한시련) 중앙회장 홍순봉, 2019년 기해년 황금돼지띠의 해를 맞아 인사드립니다.

기해년은 60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귀한 해로 황금의 기운을 받아 재물이 많이 따르고 큰 복이 온다고 합니다. 상서로운 뜻을 담고 있는 기해년 한 해, 맥내 평안하시고 하시는 일들 모두 순조롭게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해 4월 1일 한시련 중앙회장의 공식 임기를 시작해 어느새 새로운 해를 맞았습니다. 그간 여러분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나를 최선을 다하며 동분서주하였으나 아직도 부족한 면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미약하게나마 그간의 성과를 여러분께 전하며 새로운 1년을 다시 전력 질주하겠다는 의지를 다져봅니다.

지난해 중반부터 현재까지 우리 시각장애인계를 가장 불안하게 만든 것은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새롭게 예고된 활동인정조사표입니다. 개탄스럽게도 우리 시각장애인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채 발표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스스로 우리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지 못한 결과일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막아낼 것입니다. 현재 총력을 다해 저지하며 시각장애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정부 당국에서도 뒤늦게나마 25만 시각장애인의 강한 저항을 의식해 활동인정조사표를 수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뚝뚝 뭉쳐 강하게 결집한다면 막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달성되는 그 순간까지 함께 연대하고 함께 응원하며 필요할 경우 함께 분연히 일어서 주십시오. 우리의 권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한시련 중앙회장에 출마하며 제가 여러분께 드린 약속이 있습니다. 새 사람, 새 힘, 새 패러다임으로 강하고 투명한 한시련을 만들어 무엇보다 시각장애인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 미력하나마 나타난 주요 성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시련 중앙회의 정책개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권익, 고용, 복지, 규정개정, 접근성 등 5개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했습니다. 단편적인 전략들로서는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복지를 도모할 수 없어 장기적인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해 우수한 정책개발의 초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시각장애인 당사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중앙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이사회를 공개했으며 시각장애인 스포츠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의 독립 법인을 성사시켜 문체부로부터 법인화 지원금 7억 원의 지급 요청을 완료했습니다.

한시련의 수익증대를 위해서는 외부 프로젝트 지원금과 후원금을 적극 유치했습니다. 그 결과 개인 독지가로부터 3억 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GS홈쇼핑에서 장애인식개선사업을 위해 1억 원을, 사이버방송센터 '맥'을 모바일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뉴맥'으로 리뉴얼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5천만 원을 유치했습니다. 또한 인기 TV채널인 'tv N'의 화면해설을 새롭게 수주해 연간 1억 원의 수입을



늘리고 1월 중으로 발표될 장애인방송고시의 개정을 통해 화면해설방송의 재방송을 금지시켜 향후 전체 수익구조가 확대될 것입니다. 증가한 수익은 시각장애인 여러분을 위한 정책 개발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입니다. 올해 1분기까지 지하철 승강장 스크린 도어 양쪽 측면에 점자표지판이 설치되고 고속도로 휴게소에 인적 서비스가 제공되며 코레일의 명절 승차권 예매 시간을 연장시키고 홈앤쇼핑과 GS홈쇼핑에 시각장애인 전용 콜센터를 개설해 모바일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했습니다. 앞으로도 시각장애인 당사자분들이 일상에서 더욱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서비스를 더욱 적극 개발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각장애인계를 보다 강하고 투명하게 만들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떤 조직이든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의견의 대립이나 이해관계의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무조건 배척하거나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이견을 조율하고 다수를 위해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조직의 분열과 갈등을 예방하고 다수의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금의 시각장애인계는 어떻습니까? 일부의 이기적인 생각과 행동이 외부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집중해야 할 내부의 결속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은 없어야 합니다. 우리 내부의 갈등을 조정하고 분열을 초래하는 행위는 25만 시각장애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무수히 많은 위기를 극복하려면 하나로 똘똘 뭉쳐도 모자랄 판에 내부의 갈등과 분열을 조정하고 반목을 일삼는 것은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중대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주십시오. 갈등과 분열을 조정하는 행위를 엄중히 꾸짖어 주십시오. 우리 스스로 굳건히 결속되어 강한 응집력을 발휘해야만 지금의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25만 시각장애인이 하나가 되어 작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흔들림 없는 믿음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위대한 상인의 비밀’을 쓴 오그 만디노의 말을 인용하며 신년사를 마치겠습니다. “나는 큰 산을 조금씩 깎아내리는 빗방울과 같아지리라. 나는 한 번에 벽돌 한 장씩, 나의 성을 쌓아가리라. 이런 작은 시도가 반복되면 무엇이랴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작은 빗방울, 벽돌 한 장이 오늘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뚜렷한 꿈과 목표를 가지고 끊임 없이 끈기 있게 반복하면 마침내 큰 산도 깎아내릴 수 있고 우리의 성도 단단히 쌓을 수 있습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작은 벽돌 한 장부터 새롭게 쌓겠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현안과 정책과제들을 차근차근 풀어나가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2019년 기해년 황금돼지띠의 해를 맞아 댁내의 평안하심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홍순봉 배상.

풍선으로 만드는 꿈의 세상, 풍선 아티스트 고흥석 작가

“지나가버린 어린 시절엔 풍선을 타고 날아가는 예쁜 꿈도 꾸었지”
노래 가사처럼 풍선은 동심과 추억을 생각나게 하지요.
이번 호에서는 풍선으로 꿈을 만들어 내는 풍선아티스트 고흥석 작가님을 만나보았습니다.



Q. 안녕하세요, 어떻게 풍선 아트를 시작하게 되셨나요?

A. 저는 10대 때 포도막염으로 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도 시각장애인이죠. 20대까지는 실명을 했다는 사실에 많이 힘이 들고 무기력해져 칩거 생활을 했습니다. 거의 10년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스스로 무엇이라도 배우면서 생기를 찾기 위해 문화센터를 알아보았고 27살에 우연한 계기로 문화센터 강좌 중에 있던 풍선 아트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Q. 그렇군요, 풍선 아트라는 것이 풍선의 색깔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라 시각장애인으로써 작업하기 쉽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작업을 진행하시나요?

A. 많은 분들이 ‘풍선’이라고 하면 시각적인 요소를 떠올리실 겁니다. 그러나 저 역시 그랬지만 지금은 시각적인 부분을 배제하고 작업을 하다 보니 눈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다채로운 상상을 하는 것에는 방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시각적 효과에 중점을 두다 보면 그것에 얽매어 더 나은 것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죠. 제가 작업을 할 때에는 상상하는 것을 제 마음대로 구현하되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 할 때는 아내나 함께 작업하는 팀원들에게 요청하곤 합니다.

Q. 작가님의 전시 공간에 가 보면 하나의 풍선으로 작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풍선을 엮어 만드신 작품이 대부분인데요, 전시 기간 동안 어느 하나의 풍선에 바람이 빠져버리거나 터져버린다면 어떻게 하시나요?

A. 처음 제가 풍선 아트를 시작했을 때 가장 걱정했던 부분도 그 부분입니다. 풍선의 특성 상 외부의 충격이나 상황으로 인해 바람이 빠지거나 터지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 특성을 거스르려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작품 활동을 하면서 점점 방어적으로 변하고 제가 상상 하는 많은 것들을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작품을 감상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제가 작품을 통해 알리고자 하는 메시지의 공유 폭도 좁아졌고요. 그래서 지금은 풍선이 가진 소재의 특성을 살려 터지면 터지는대로 바람이 빠지면 빠지는대로, 자연스럽게 전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Q. 이번 전시의 주제가 “예술은 생각하지마!”인데, 이와 같은 전시 주제를 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A.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술이라고 하면 다가가기 어렵고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술이라는 것은 한정적인 것이 아니거든요. 작품을 감상하는 사람이 작가의 의도와 다르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 작품을 만든 작가와 감상하는 사람이 함께 공감하고 무언가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외의 경우에는 전시회를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곳이라고 무겁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다가 둘러볼 수 있고 작품을 통해 작가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전시 역시 많은 사람들이 예술에 대해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모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즐거운 활동이라고 여기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제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Q.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작가님의 앞으로 활동 계획과 국내의 문화 예술 관계자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실까요?

A. 앞으로는 작가로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적인 활동도 병행하려고 생각중입니다. 올해의 전시는 갤러리 쿨에서 진행한 예술은 생각하지마!“가 마지막이 될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국내의 문화 예술 관계자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가 해외 전시도 몇 번 참여해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 때마다 느꼈던 것은 해외의 경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분이 적다는 것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애플의 제품을 사용하기 쉬운 이유는 제품 개발 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을 했기 때문 일텐데요. 이처럼 국내에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분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라는 생각을 기반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전시회나 공연 등을 불편함 없이 즐길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중도시각장애인은 어떻게 재활할까요?

질병이나 사고 등과 같이 후천적으로 시력을 잃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중도시각장애인이라 부릅니다.

중도시각장애인들은 어떻게 재활교육을 받을까요?

시각장애인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 시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있지만 질병이나 사고 등과 같이 후천적으로 시각 장애를 얻게 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후천적으로 시각장애를 얻게 되면 신체적, 정신적으로 많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시각장애인들에게 재활 교육은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자립하는데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는 중도시각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시각장애인복지관이 소재하지 않은 5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중도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사업을 소개합니다.

먼저 연 초마다 5개 시·도 및 50개 시·군·구 지역 선정해 중도시각장애인재활지원 센터를 운영할 곳을 선정합니다. 주로 복지서비스가 부재한 곳이나 재활 서비스가 지원되지 않는 농어촌 및 지방도시를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이후 선정된 50개 시·군·구 지역에서는 중도시각장애인이 재활을 할 수 있도록 점자, 보행, 정보화, 역리학, 일상생활 등의



교육이나 중도시각장애인의 문화생활을 위한 여가활동 교육을 진행하게 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문화·예술 향유에 대한 욕구가 높아져 제과제빵 교실, 건강 스트레칭 교실, 양궁 교실 등 다양한 재활 프로그램에 대한 요청이 늘고 있는데요. 현재 선정된 50개 시·군·구 지역에서는 예산상의 문제로 인해 한 가지 프로그램만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재활에 대한 의지가 강한 중도시각장애인들의 욕구를 100% 만족시키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또 중도시각장애인의 경우 실명에서부터 재활까지의 기간이 장시간 소요되며, 적절한 시기에 제공되어야 할 재활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해 사회복귀의 기회를 놓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는 지역 간 복지 인프라 편차가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 내에서 적절한 재활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기초재활서비스 제공이 열악한 농어촌 및 복지사각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중도시각장애인 개개인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지역사회 내에서 제공하여 시각장애인이 사회적으로 다시 자립하도록 돕는 사업의 시행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천사는 천사다웠으면

조재훈(서울특별시 종로구)

나는 서울 맹학교를 독립문 근처에서 다닌 적이 있었다. 그런데 효자동 쪽의 맹학교는 도심에 있으면서도 구석진 곳이라 교통이 불편하였다. 대중교통으로 버스와 전차가 있었으나 모두 효자동에서 원효로 방면으로만 운행하였다. 전차는 거의 기억에서 사라질 정도로 오래 전의 교통망이었는데 일반 차량들이 계속 운행되는 한길 복판에 설치된 레일 위를 다니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이 타고 내리기에 아주 위험하였다. 그래서 주로 버스를 타게 되었다. 그런데 노선이 단순하다 보니 배차시간이 더딜 뿐 아니라 환승하기가 어려웠다. 내가 효자동 차를 갈아타는 정거장은 서울역에 있었다. 그런데 제 자리에서 타지 못하고 상당한 거리의 차도를 건너다녀야 했다. 그렇게 위험한 길을 건너 원하는 차에 오르면 무작정 차장에게 밀려나게 되었다. 차장의 부당함에 목살잡이를 몇 번 한 뒤 그야말로 내가 찍힌 모양이었다. 그때는 버스의 앞문과 뒷문에 차장이 근무하고 있었다. '왜 경찰에게 고발하지 못했느냐.'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때는 승차거부에 대한 교통법규도 모를 뿐 아니라 경찰 역시 장애인에게 그렇게 우호적이지 못 하였다. 아니 장애인은 그렇게 차별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일로 여기고 있었다. 어느 차나 만원이라 사람이 짐짝 취급을 당하는 것이 보통이고 차장 또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하나의 권리처럼 되어 있었다. 그래서 완력이 약한 여 차장이 있는 앞문을 골라 타야 하는데 그것 역시 쉬운 일이 아니었다.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뀌기 시작한 것은 아무래도 <88 장애인올림픽>이 있는 뒤부터라야 할 것이다. '신체발부는 수지부모라' 하여 유교사상이 배어있는 사람들은 탄생시의 몸을 그대로 지니지 못하고 장애를 가지게 된 것을 불효로 여기는 수가 많았다. '병신자식 고운데 없다.'란 속담도 있다. 얼마나 가혹한 말인가? 그러나 역사를 보면 세상은 갖추어진 사람들에 의하여 발전하게 된 것이 아니라, 덜 갖추어져 고통 받고 인내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서양 최초의 서사시인인 호머도 시각 장애인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위대하신 세종대왕께서도 시각장애인이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또 우리나라 식품사에 빼놓을 수 없는 약과, 약식, 약주를 만든 사람도 서약봉 정승의 어머니인 이씨부인으로 시각장애인이었다고 알려져 있다. 이 이씨 부인은 이퇴계 선생님이 중매를 섰던 것으로 더 유명하다. 거기에 사람은 늙으면 누구나 한 두 가지 이상 장애를 가지고 지내다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 왜 그렇게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심하였을까? 종교의 이념이 잘못 인식되었기 때문이었을까? 외신을 통해 이슬람권의 여성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남의 말 같지가 않다. 요즘처럼 자유롭고 모든 것이 개방되어 있는 세상인데 말이다. 하기가 그러한 차별을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고통스럽지만 모든 것이 평균화 되어 있다면 세상은 너무 단조로울지 모른다. 따라서 궤변 같지만 사람들의 흥밋거리를 위해 이러한 다양성은 필요하다고 해야 할까? 그리고 이러한 자극들이 동력이 되어 세상은 발전해나가는지도 모르겠다. 우리는 그 어려웠던 과거 때문에 개선된 오늘의 복지를 더 값지게 느낄 수 있는지도 모른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지금의 장애인복지를 묻는다면 과연 그 가치에 만족하고 있을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니까.

서울시장님께서 시각장애인들에게 전철역에 안내봉사자를 내보낼 것이라고 하여 반신반의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었다. 얼마나 고맙던지! 정말 천사를 보내주었다고 여길 정도였다. 지옥철 같다는 땅굴 속의 광음 가운데서 헤매던 그 공포! 그 안내인들은 자기를 자원봉사자라고 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 치고는 너무 서투른 데가 많았다. 대개 자원봉사자들은 친절할 뿐 아니라 일에도 능숙한 편이다. 그러나 이 분들은 그렇지 못하였다. 대기하기로 한 곳에 나오지 않을 뿐 아니라 차를 잘못 태워줄 때도 있었다. 시각장애인들의 안내를 위해서는 팔꿈치를 내놓는 게 기본인데 그것도 모르는 봉사자가 많았다. 그래서 그 속을 들여다보니 자원봉사자가 아니라 노인 실업자들의 생활대책을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품삯도 최저임금보다는 나은 편이었다. 장애인들에게는 좋은 안내자가 되어 외출도 편하게 해주고 노인 실업자들에게는 작으나마 생활대책이 되니 일거양득이라고 할까? 거기에 지하철 안전사고까지 방지할 수 있으니 일거삼득이 되는 일이라 해도 무방하겠다. 시민들의 귀한 세금을 써서 하는 일이니 보다 좋은 결과를 보게 되면 금상첨화가 아니겠는가? 그런데 기왕이면 예산을 조금 더 들여서라도 안내인은 맡은 일을 익숙하게 하도록 훈련을 시켰으면 좋겠다. 역시 봉사자는 봉사자다워야 하겠다. 그러면 안내자가 천사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되면 서울 시정도 한층 신뢰가 쌓이게 될 것이고 시장님의 업적도 한층 빛나게 될 것이 아니겠는가? 모처럼 만나게 된 천사, 정말 천사는 천사다웠으면 하는 생각이다.

캐나다, 2019년 3월까지 '장애인 도서관 확대' 하기로



캐나다 연방정부가 내년 3월까지 200만달러(약 17 억원) 상당의 기금을 투입하는 장애인 도서관 확충사 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점자도서, 전 자북, 오디오북 등을 지원해 장애인들의 도서관 이용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공평한 도서관 서비스를 위한 국가 네트워크'의 일환으로 진 행되었습니다.

장애인-비장애인 간의 장벽을 없애고 모두가 공평 하게 배우고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데요. 캐나다의 시각장애인들이 이 사업으로 풍부한 독서 문화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웨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표정 인식 앱 선보여



중국의 다국적 통신 기술 업체인 화웨이가 시각장애 인을 위한 표정 인식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습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의 이름은 Facing Emotions인데요. 폴란드 시각장애인협회와의 제휴로 제작되었습니다. 현재는 이 애플리케이션은 화웨이의 Mate 20 Pro 스 마트폰 전용으로 설계되었는데요. 시각장애인이 어 떤 사람과 이야기하면 전화기의 뒤쪽 카메라가 그 사 람의 얼굴을 스캔하고, 인공지능기반 알고리즘 데이 터를 활용하여 눈, 코, 눈썹 및 입을 분석하게 됩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7가지 기본 감정을 분별할 수 있 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추후 한국의 스마트폰에 도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NEWS

겨울에도 필라테스로 관리해요!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는 추운 겨울에도 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움직임이 한창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각장애인 이용자와 함께하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필라테스 프로그램인데요. 매주 월, 수, 금, 일주일에 세 번씩 15명이 모여 1시간 씩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겨울철 경직되기 좋은 근육을 깨우고 스트레칭과 함께 근력 운동을 하며 신체의 모든 기능을 활성화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두 달 동안 진행되는 이번 필라테스 프로그램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의 몸과 마음이 튼튼해지길 바랍니다.

스릴만점 스키를 타며 추위를 잊어요!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은 지난 12월 11일부터 12월 13일까지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로 '문화체험과 함께하는 2018 서울특별시 동계레저스포츠캠프'를 다녀왔습니다. 시각장애인 24명, 가이드와 직원 24명이 함께한 이번 캠프는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의 후원으로 실시되었는데요. 강사의 전문적인 스키 강습 후, 시각장애인들은 나사렛대학교 특수체육학과 학생들과 1:1로 짝을 이뤄 스키를 즐겼습니다. 또 스키 외에도 수제비누 만들기, 초콜릿 만들기, 커피박물관 견학 및 핸드드립 체험 등 다양한 문화체험이 준비되어 시각장애인의 여가문화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많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2018년 공직진출대비반 평가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12월 8일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2018년 공직진출대비반 평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평가회는 공직진출대비반 수강생, 시각장애인공무원 합격생, 안내자 및 직원 등 총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는데요. 2018년 공직진출대비반 운영 사업평가, 2019년 사업계획 안내, 2018년 공직진출 합격자와 교육생들의 학습교류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특히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재원을 활용하여 운영되는 본 평가회에서는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보고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는데요.

앞으로 공직진출대비반을 통해 공무원의 꿈을 이루는 시각장애인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지난 12월 7일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는 복지관에서 활동중인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를 대상으로 한 해 동안 수고에 감사드리는 2018년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송년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노원역 인근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며, 우수봉사자 및 후원자를 표창하고, 봉사활동 내역 상영 및 수상자 소감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많은 봉사자와 후원자분들의 노고를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를 향한 아낌없는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공공장소를 방문한 시각장애인을 만나면

시각장애인이 공공장소에서 화장실(물 내림 스위치와 휴지걸이의 위치 등)이나 엘리베이터 등의 시설물을 이용하게 될 때, 내부의 간략한 구조를 설명하면서 기동 등에 부딪히지 않게 안내하시고, 기물의 위치를 알려주시면 낯선 곳에 대한 긴장감이 덜해 집니다.

시각장애인이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데 있어 힘든 점은 시설물 자체에 대한 이해부족이 아니라 거리 감각이나 위치의 낯설음 때문입니다. 시각장애인이 이용하기에 어렵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지 말고 구조에 대한 설명 해주시는 것을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I 후원안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전국 50만 시각장애인의 복리향상과 권리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시각장애인 단체입니다. 후원자의 정성된 사랑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소중히 쓰일 것이며 후원자의 후원금은 소득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제18조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로번호 7608162

계좌번호 (예금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국민은행 835-02-0114-768, 497801-96-200273 우리은행 428-04-103943

하나은행 757-810001-08405

외환은행 170-22-00710-6



손으로보는세상 2019년 1월 222호

발행일 2019년 1월 15일 발행처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발행인 홍순봉 편집 김민지

주소 07236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22(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601호

T 02,799,1043 F 02,799,1017

홈페이지 www.kbuwel.or.kr

한글도메인 시각장애인.kr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kr

디자인 한국엠디 02,867,1921

캘리 모노D